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Soli Deo Gloria)

고전15:10, 딤후1:9

최 영 목사 (목회와신학연구소장)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를 많이 떠올립니다. 루터가 95개 테제를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붙인 10월31일을 종교개혁기념일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단지 루터만이 아니라 츠빙글리, 마르틴 부처, 칼빈, 마틴 부버, 존 녹스 같은 개혁자들이 함께 기억되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칼빈이, 그가 성취한 일과 함께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칼빈이 루터가 시작한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완성한 개혁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그가 가톨릭교회와 뚜렷이 대비되는 개신교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루터와 칼빈은 거의 한 세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선적인 관심사가 달랐습니다. 루터의 관심은 “어떻게 내가 은혜로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요약할 수 있고, 칼빈 같은 다음 세대의 개혁자는 그로부터 비롯된 문제, 즉 “어디에서 내가 참된 교회를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루터가 갈라진 개신교파들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교회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발전시키지 않은 것은 아마 가톨릭교회와의 분리가 일시적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540년대에 이르러 그런 재결합이 결국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개신교 신학자들은 새로운 교회 모델을 형성하는데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것은 칼빈에 의해 제시되고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칼빈은 1509년생입니다. 그가 1536년, 우리 나이로 27살 때 제네바의 개혁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 1564년 그가 죽기까지 약25년 간 개혁자로서의 그의 삶은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칼빈이 젊은 개혁자로 제네바에 들어서서 약2년 간 일하다가 반대파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1538년 동역자 기욤 파렐과 함께 추방되었다가, 약3년이 지난 후에 제네바의 정치상황이 역전되어 다시 초빙 받았을 때 그가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1541년부터 23년 동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55세가 되던 해인 1564년 5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가 동역자들에게 남긴 유언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무덤 묘비에 “칼빈의 묘”라는 말을 기록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여 사람들이 자기 묘를 찾아 참배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릴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한 평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개혁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결코 투사 같은 운동가, 행동가의 기질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샌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던 학자였고, 조용한 연구자로서의 삶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과 연루되어 스트라스부르로 피신하여 조용히 연구자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전혀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그를 개혁자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가 스트라스부르로 길을 떠나려고 했을 때, 마침 프랑스왕 프랑수와 1세와 칼 5세가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지름길 부근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 그는 어쩔 수없이 제네바로 멀리 우회하여 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제네바에 도착한 날 저녁에, 제네바에서 먼

저 개혁자로 활동하던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이 그를 찾았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그때 당시 칼빈은 27세에 불과했지만 이미 학계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파렐은 칼빈과 같은 학자가 제네바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파렐의 요청에 자신은 학자일 뿐이며, 곧바로 스트라스부르로 떠날 것이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파렐은 칼빈을 향해 청천벽력같이 외칩니다. “이렇게 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 돕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다!” 칼빈은 이에 순종하고 개혁자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2-3년간 교회개혁에 매진하다가, 반대파의 저항에 부딪혀 스트라스부르로 망명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스트라스부르의 개혁자 마르틴 부처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 망명자들의 교회를 섬기며 개혁을 위한 일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별 다른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그는 스트라스부르에서 그러한 활동을 계속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제네바의 상황이 급변합니다. 칼빈과 파렐에게 우호적인 세력이 의회의 권력을 차지했고, 칼빈에게 제네바의 공식 대표단을 보내서 제네바에 다시 와서 못다 이룬 개혁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칼빈은 주저하기는 하였지만 결국 거절합니다. 그가 파렐에게 보낸 편지에 그의 심정이 절절히 드러납니다. 그는 그 편지에 “이 십자가에서(제네바에서의 지난 삶) 매일 천 번이나 부서져야 했기에 차라리 백 번의 다른 죽음을” 택하겠다고 썼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파렐이 다시 칼빈에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위협했고, 칼빈은 또 다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파렐에게 그의 비장한 심정이 담겨 있는 편지를 보냅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칼빈은 남은 인생여정을 저 비장한 표현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삶, 그야말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칼빈의 저 표현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는 칼빈의 주장을 하나님만이 전부이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16세기는 인본주의적 분위기가 움트고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이 만연해가던 시기였습니다.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천체 과학자들에 의해서 천동설이 부정되고, 지동설이 등장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만물의 영장 인간이 우주의 중심을 차지한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중심주의적 관심이 급격히 늘어가던 시대에,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표어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거슬렸으리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 건물 앞에는 “프랑스에게 영광을!”이란 글이 크게 금빛으로 새겨져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끝없이 드높이고, 부풀리는데 모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 가리키는 교만한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반역에 이르렀고, 결국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와 피조세계 전체가 죄와 부패로 만연하여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기에 합당하다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2000년의 기독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주장했던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조차도 말로는 그렇게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드러내려는 욕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의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 의지, 역할, 가능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A.D. 5세기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은 이 논쟁의 시원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강조하였고, 펠라기우스는 결국 이단으로 축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세 1,000년의 로마 가톨릭교회는 이단으로 축출된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약간 캄푸라치해서 그대로 교회의 정통주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半-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 주의나 반-펠라기우스주의는 구원의 문제에서 인간이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신인협력설’로 알려진 주장으로,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서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 관계의 문제에서 다시 균형을 회복하였습니다. 개혁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오직 성경만”(sola scriptura), “오직 믿음으로만”(sola fide), “오직 은혜로만”(sola gratia), “오직 그리스도만”(solus Christus),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soli Deo gloria)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는 삶의 원칙이 바로 장로교의 “예정신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정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의 모든 행위와 업적을 배제하고,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만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며(엡 1:4-5),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자는 신앙고백과 같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리적-신학적 강조점	개혁교회의 교리적-신학적 강조점
성경과 전통	오직 성경만(sola scriptura)
믿음과 행위	오직 믿음만(sola fide)
은혜와 공로, 업적	오직 은혜만(sola gratia)
그리스도, 마리아와 성인들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
하나님, 성인들, 교회의 성직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soli Deo gloria)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이란 칼빈의 주장은 우리를 비하하고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죄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높일 때, 우리가 비하되고 비천하게 되고 헐벗게 되고, 하나님만 전부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낮춘다고 해서 손해 볼 일이 없고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존심 내세울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비로소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주도권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칼빈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의와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는데,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까닭이 어디 있겠으며, 그의 예정과 섭리를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란 개혁자의 표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사도 바울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전 15장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16세기 당시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은 바울의 이 발언을, 자신이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이 너무 교만하게 들릴 것 같았기에 바울이 그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에 돌림으로써 자기의 발언을 수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하나님의 동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들과 논쟁하며, 사도는 주의 은혜가 자기와 함께 수고해서 자기를 동역자로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수고한 공로를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돌린다는 의미에서 이 수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저 발언은 결코 하나님만 전부이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최소한 17권을 그가 저술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정말 죽을 뻔 했던 일들을 수없이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하는 일에 온 몸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전부이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최소한 바울에게는 안 통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삶은 최선을 다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삶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장면을 칼빈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다!’ 라고 고백한 그의 삶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고전15장10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칼빈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칼빈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그가 바울과 많은 점에서 닮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개혁자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봅시다. 칼빈은 1542년에 그의 두 번째 「제네바 신앙문답서」를 펴냈는데, 여기서 쉽게 설명해 줍니다. 「제네바 신앙문답서」 질문 §1은 “인생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그 질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고 대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주된 목적을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권력을 누리는 것 등등 생각합니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인생무상을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칼빈은 인생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를 아는 것이 인생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주된 증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은 결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만으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거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짓는 죄라고는 경범죄 정도?, 무단횡단, 고성방가, 속도위반 등등? 아닙니까?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죄’라는 것을 도덕적인 죄, 또는 형법, 민법에 위반되는 죄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형법, 민법에 저촉되는 죄는 거의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가 나 자신과 별로 관계없고, 그래서 재미가 없고, 회개하라는 외침이 썰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하루는 이런 주제에 대해 설명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죄에 대해 말하면 옛날 기억을 떠올라 부담되고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니까 물었더니, “제가 여섯 살 때, 처음 교회에 갔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회중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하고 아무개야 너는 죄인이니 회개하라고 막 다그쳐서 무서워 떨며 울었던 기억이 언제나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권사님은 여섯 살적의 무서웠던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나쁜 기억으로 남아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듣기 싫다고 교회에서 그 단어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마치 어린아이를 씻은 물이 더럽다고 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던져버리는 결과가 생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 자신만을 놓고 볼 때는 결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신앙인들은 가능한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라고 말하면 좀 기분 나쁘고 화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인간에 대해 말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컨대,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빛처럼 강렬한 거룩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면, 부정한 자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사13:22).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압도적인 두려움을 체험했고, 죽음의 공포로 쓰러질 만큼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면, 시편 51편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시51:3-4).

그래서 개혁자 칼빈은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보기 전에는, 결단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이 해가 비칠 때, 그 모든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없었을 것이고, 자신이 죄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거룩한 분과의 만남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그가 그물을 정리하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심정은 마냥 기쁘고 즐겁기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물에 나와 예수께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눅5:8).

칼빈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 인생의 주된 목적이라고 말했던 것은 정확히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진정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칼빈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일까요? 칼빈은 신앙문답에서 그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네바 신앙문답서」는 373개 항목의 질문과 대답이 있는데, 전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부분의 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체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칼빈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거룩한 뜻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일체의 궁핍 가운데서 구원과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구하고 기도하며, 모든 행복은 다만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또 입으로 표현하고 인정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칼빈은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네 가지 방식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복종하며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일체의 궁핍 가운데서 구원과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구하는 일입니다. 넷째, 모든 행복은 다만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또 입으로 표현하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 네 가지 방식은 신앙문답의 네 부분과 일치하고 실제로 그것의 기초를 구성합니다. 첫째 부분은 사도신경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둘째는 십계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셋째,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기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넷째, 성례전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칼빈은 어떻게

성례전이 우리의 신앙과 섬김에 대한 진실하고 가시적인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수단이 되는가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십계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성례전에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11:30) 하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십계명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기도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함으로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 한해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9년이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해가 어떤 해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칼빈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많은 사업과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는 칼빈을 기념하여 거리의 이름을 ‘칼빈 거리’로 하자는 주장도 서울시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성사되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많던 사업과 행사들은 지나가버리고, 이제 잊혀졌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도 역시 많은 행사와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개혁자들이 했던 결단과 다짐, 각오가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개혁자의 심정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올 한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바울처럼, 칼빈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1월15일